

중학교

드림 레터

다국어기획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2019년 다국어 기획호

드넓은 세계 우리 자녀의 꿈을 키워 주세요



우리 자녀의 '질풍노도' 사춘기 이해하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자기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급격한 정서적·인지적 변화를 겪는 탓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불리지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외모와 언어, 문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다른 외모와 문화적 배경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계에서 국가관과 자기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등의 질문에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의 든든한 격려와 응원입니다. 국가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함께 겪고 있는 자녀가 자신을 '쓸모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세요. 학부모님이 한국 적응기에 겪은 심리적·정서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탐색에서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가진 장점과 개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진로선택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함께 나누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바로 학부모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든든한 롤 모델, 멘토 찾아주기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을 돕고 진로와 고민 상담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해 이중언어 멘토링도 진행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우수인재, 두 개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다문화 자녀들의 강점을 보여 주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발 앞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간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면서 자녀들은 인생의 롤 모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꼭꼭! 진로 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발간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베트남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등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자녀의 진로·진학에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진로 진학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사춘기에 대해 이해하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포털(<https://nime.or.kr>) > 학부모공간 > 학교 진학정보 >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베트남어) 바로가기 ▶



우리 자녀는 다양성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입니다

Q. 미래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개수는 12,000개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앞으로 미래의 직업 세계는 이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과 기술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이민자와 결혼이주자가 늘어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또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국가로 진입할 것입니다. 민족 중심, 인종 중심의 이데올로기는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포용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Q.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어느 사회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형성됩니다. 성별, 종교, 계층, 인종 등에서 비롯되는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만큼 서로의 문화를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문화적 다양성은 그 사회공동체의 잠재력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한국사회의 인종적, 민족적 문화 다양성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미래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다문화 자녀로서의 특성을 혼란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오히려 상대적인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문화를 수용하고 더불어 살면서 세계시민적인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Q. 더 다양한 직업체험과 진로활동을 접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체험부터 직업인 특강과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험활동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폭넓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자녀의 참여를 독려해주세요.

학부모님이 사용하는 외국어 능력, 문화에 대한 해박한 이해 등 장점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2013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은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상자를 대상으로 매해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장점과 개성을 글로벌 역량으로 계발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꼭꼭! 진로 정보

우리 동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보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교육과 진학·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과 학부모교육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일부 센터는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우리 동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보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s://www.liveinkorea.kr>) 바로가기 ▶

